

성경의 리더

민수기 3:7-10; 데살로니가전서 2:9-11; 마태복음서 23:1-12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독립 민족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을 선택하여 이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민 3:8)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할하기 위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의 업무는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으로 그들은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를 현 시대의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은 목회자라 할 수 있겠으며, 레위 지파 사람은 직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성막의 리더였던 것처럼 현재 목회자와 직분자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흘러, 레위 사람이 선택되고 제사장이 임명된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500년 전 직무가 시작되었을 때 그대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도 비판하셨던 대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조목조목 나열하신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상반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 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2-3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말은 제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니 행하고 지키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현실적 조언을 해주십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훌륭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솔직히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분들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세상 지도자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언행일치!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자주 들어오던 생활윤리의 지침, 그 기본 지침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잘못된 모습은 ‘비(非)술선수범’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4절).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도 말만 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참된 리더일 수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모습은 ‘위선’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5절). 예수께서 가장 빈번하게 비판한 내용이 바로 위선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가식’입니다.

넷째 잘못된 모습은 ‘교만’입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 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7절). 교만은 앞의 세 가지 잘못된 모습의 근원입니다. 교만하니까 언행이 불일치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술선수범을 안 하며, 교만하니까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20세기

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책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교만을 인간의 죄된 본성이자 원죄의 근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인간의 본성이었으니 인간들끼리의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순간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만약 떠받들어 준다면 매우 교만해집니다. 만약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재물을 가지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 그 방안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만 인간의 교만은 다스려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의 본성인 교만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8-10절). 우리 인생의 랍비도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기에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 평등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볼 것은 예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니 공평하게 살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11-12절). 이

것이 신앙인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신앙인 리더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서로 평등하게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충분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평등을 넘어서 ‘겸손’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데 어디까지인가 하면, 교만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 자체가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다스려서 서로 공평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이를 해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살전 2:9-11). 언행일치, 술선수범, 진실함, 겸손, 네 가지 모두를 갖추었습니다. 언행불일치, 비술선수범, 위선, 교만한 리더와는 정반대의 리더입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행일치, 술선수범, 진실함, 겸손을 보여주는 참된 리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리더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범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섬김의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많지 않은 교인들을 오히려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자녀를 오히려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일터에서는 나보다 지위가 아래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이야 쉽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그러한 섬김의 리더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 동 환(2020. 11. 1.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